

“활전복 반값에 드려요”… 대형마트업계, ‘홈보양족’ 쟁긴다

롯데마트 정부·지자체 사업 연계 식재료·생활용품 등 할인 혜택

이마트 일주일간 ‘중복대전’ 행사 ‘한마리 영계·토종 닭백숙’ 특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외식비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집에서 보양식을 챙겨 먹는 ‘홈보양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 업계는 오는 25일 중복을 앞두고 일제히 대대적인 할인전에 돌입한다.

22일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생닭과 장어, 전복 등 대표 보양 식재료부터 즉석 조리 간편식, 제철 과일과 여름 생활용품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펼친다.

최근 집에서 즐기는 보양식 수요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마트가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백숙용 생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다. 피코크 간편식 삼계탕 매출 또한 17.4% 늘었으며, 키친텔리 코너의 장어 관련 상품 매출은 55.9%나 급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마트 제타플러스점 잠실점 닭고기 코너에서 백숙용 닭을 구매하는 고객의 모습. /롯데마트

증했다. 식재료를 직접 구매해 요리하는 수요와 간편하게 즐기려는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롯데마트는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자체 협력과 연계해 할인 폭을 대폭 넓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상생통닭 백숙용’과 ‘영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복시즌 훈제 치킨 슬라이스’는 다량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준다. 간편 보양식을 찾는 고객을 위해

‘한마리 장어덮밥’과 ‘한판 훈제오리’를 특가로 내놓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행사카드 결제 시 ‘상운 삼계탕’ 전품목에 15% 할인을 적용한다. ‘요리하다’ 브랜드의 삼계탕 2종은 엘포인트 회원 대상 행사카드 결제 시 약 35% 할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수산물대전도 진행한다. 손질 민물장어, 완도 활전복, 국산 생새우 등 주요 수산물을 20% 할인하며, 완도 활전복은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 외에도 하우스 감귤, 사인머스켓, 성주 참외 등 제철 과일과 파프리카, 단호박 등 채소류를 할인 판매하며, 여름철 수요가 높은 냉면과 쫄면 등 냉장 간편식은 ‘1+1’ 또는 4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습기 제거제와 실내건조 세제 등 장마철 생활용품 할인도 함께 마련했다.

심영준 롯데마트·슈퍼 판촉마케팅팀장은 “중복을 앞두고 보양 먹거리와 제철 신선식품, 필수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고객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마트 역시 같은 기간 ‘중복 대전’을 개최하고 보양식 관련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국내산 ‘한마리 영계’와 ‘토종 닭백숙’을 특가로 내놓고, ‘무항생제 두마리 영계’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40% 할인한다. 수산물 코너에서는 손질 민물장어와 완도 활전복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반값에 구매할 수 있으며, 국산 생새우도 할인가에 제공한다. 특히 24일 단

하루 동안 ‘한가득 흥계 해물탕’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하고 구매금액의 20%를 e머니로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연다.

수입육과 즉석 조리 식품 혜택도 다채롭다. ‘호주산 곡물 첨가미트’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미국산 삼겹살과 목심은 30% 할인한다. 키친텔리 코너에서는 생닭 한 마리를 넣은 ‘늑두 삼계탕’과 ‘두마리 장어 영양덮밥’, ‘킹 양념장어구이’, ‘장어 강정’ 등 다채로운 즉석 보양식을 판매한다. 제철 식품으로는 ‘캠벨 포도’와 ‘대학 찹옥수수’, ‘파머스픽 흑미수박’ 등을 포인트 적립 할인가로 준비했다.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은 “외식 물가 부담으로 집에서 직접 보양식을 준비하거나 간편하게 즐기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삼계탕 외에도 장어, 전복 등 보양식 식재료와 다양한 즉석 조리 상품, 제철 신선식품까지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홈플러스, 전국 핵심점포 영업 순차 재개

회생기한 확보… 구조혁신 속도 수도권 중심 배송권역 확대 예정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취소로 회생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확보하면서 영업 정상화와 구조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 다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회생 성공 여부는 향후 한 달여 동안의 정상화 성과에 달리게 됐다.

22일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보된 회생 기간 동안 DIP(간접운영자금) 대출을 투입해 핵심 점포 영업을 재개하고 유동성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DIP 대출금이 집행되는 즉시 현재 임시휴업 중인 전국 67개 핵심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영업을 재개하는 점포는 소요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방식을 일부 조정한다. 복층 매장을 약 1000평 규모의 단층으로 바뀌어 영

업면적을 줄이고 식품과 PB상품, 고화전 생활품 위주로 판매해 현금 흐름을 빠르게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수도권에서 즉시 운영이 가능한 16개 점포부터 배송 서비스를 재개한 뒤 배송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영업 점포와 배송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달한 자금은 상품 대금과 연체 임대료, 공공요금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데 활용한다. 지급이 지연된 직원 급여와 소상공인 입점업체 정산금도 순차 지급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회생 기간 동안 구조혁신 작업도 마무리한다. 현재 임시휴업 중인 37개 부실 점포는 폐점을 추진하고 본사와 점포 운영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은 당분간 휴직 상태를 유지한다.

회생 절차가 연장됐다고 해서 정상화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향후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즉시항고를 기각하면 홈플러스는 지체 없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유통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은 되살아났지만 정상 영업과 자립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누적된 공익채권 규모가 약 93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확보한 2000억 원의 DIP 자금 상당 부분이 협력업체 미정산 대금 상환에 사용될 경우 추가 운영자금 확보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업 기반이 크게 훼손된 점포 부담이 다.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약 1200명의 직원과 700여 개 입점업체가 이탈했다. 중소 협력업체의 평균 미정산금도 7억 7000만 원 수준인 만큼, 협력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상품 공급 체계를 복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서현 기자

다이소 “디퓨저로 장마철 향기롭게 보내세요”

디퓨저 모음전… 20종 상품 선택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장마철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퓨저 모음전’을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공간과 취향에 맞는 향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쿤달(KUNDAL), 알레(ALLE), 코코도르(COCODOR) 등 브랜드의 디퓨저를 포함해 총 2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

쿤달은 대표 향을 담은 ‘리치퍼퓸 디퓨저’ 4종을 출시했다. 전문 조향사가 개발한 향을 적용하고 식물 유래 추출물을 함유했으며, 브라운 컬러의 용기와 골드 캡을 적용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향은 스위트체리, 소프트파우더, 러브인일랑, 퓨어송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알레는 사용 공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마련했다. 장미 모양 조화 스틱을 더한 200ml 제품은 코튼향과 블랙체리향으로 선보이며, 500ml 대용량 제품은 원코튼, 플라워가든, 스위트체리 등 3가지 향으로 구성됐다.



‘알레 장미 디퓨저 200ml’ 2종 /아성다이소

50ml 소용량 제품은 코튼향과 라벤더향을 담아 방이나 차량 등 좁은 공간에서 활용하기 적합하다.

코코도르는 욕수수를 발효해 얻은 주정을 베이스로 사용한 디퓨저를 선보인다. 100ml와 200ml 용량으로 출시되며 스위트체리, 소프트머스크, 로얄라벤더, 꽃시장 등 4가지 향으로 구성됐다.

생활 공간별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냄새 제거 디퓨저’도 함께 판매한다. 욕실용 아쿠아향, 반려동물 공간용 머스크향, 주방용 레몬그라스향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제품으로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영업·배송 규제 완화 중단해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논평 “지역경제 선순환 정책 우선 추진해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둘러싸고 소상공인 단체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22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새벽배송 규제 완화 추진은 중소 수퍼마켓과 골목상권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완

화 방안을 담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회는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금 조성 등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 논의나 실행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거대 유통기업 간 경쟁을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신속 추진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영세 중소 수퍼마켓에 대한 보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골목상권과 지역 유통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자본

력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대형마트가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까지 확대할 경우 동네 중소 수퍼마켓은 가격 경쟁과 배송 경쟁 모두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중소 유통업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 플랫폼 보급, 물류 인프라 현대화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화폐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CFS, 인천 물류센터 화재 피해보상 나서

로켓그로스 입점 판매자 재고 전액 보상

쿠광폴필먼트서비스(CFS)가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로켓그로스 입점 판매자의 재고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CFS는 화재로 재고가 소실되거나 영업에 차질을 겪은 판매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구역은 물론, 불이 번지지 않은 구역에 보관된 재고까지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측은 화재 조사와 보험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자체 책임 아래

선제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화재 피해 보상은 손해사정과 피해 규모 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CFS는 판매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이 직접 번지지 않은 구역의 재고도 반출 지연이나 분진에 따른 손상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CFS는 판매자별 재고 수량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오는 8월 중순부터 보상 규모와 지급 예정일, 필요한 절차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